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선보엔젤파트너스(주)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

SUNBO NEWS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8년 9월 15일

vol. 176

주요 소식

최금식 회장, 부산 지역 규제혁신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 중소기업 경영 애로 덜어줄 규제 혁신 기대



최금식 회장이 지난 달 16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시, 중소기업음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금식 회장을 비롯하여 최병환 국무1차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부산지역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고용여건 악화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발급 절차 간소화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사항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들과 참가 기업들은 산업현장과 정부 시책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인 만큼 해양수도 부산의 근간이 되는 조선 분야와 관련한 현장의 요청도 이루어졌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조선 기자재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최금식 회장은 "LNG선박과 LNG추진선은 우리 조선소와 국내 조선기자재가 제일 앞서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뛰어난 성과에 대해 언급한 후 "기술적으로 앞선 것을 넘어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려면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선박 발주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LNG 연료 추진선은 세계적인 해양 환경보호 기조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선박 분야로, 우리 회사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LNG 선박 관련 UNIT들을 수주·납품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서 LNG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추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먼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효과를 위한 국무총리 주재의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 홍보해나간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불황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같은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가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실현과 규제 혁신으로 이어져 부산 기업들의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사 소식

최금식 회장, 부산지역경제사절단으로 베트남 방문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깊이 있는 경제협력 논의



최금식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응우옌 쉰원 폭 총리와 응우옌 티 김 응원 국회의장 등 베트남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경제사절단은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부산-나짱(나트랑) 직항편 신설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부산 기업의 주력산업인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업의 위기가 이어지며 사업 다변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대안으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베트남을 찾은 경제사절단은 응우옌 쉰원 폭 총리 및 응우옌 티 김 응원 국회의장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건설과 조선,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베트남 고급 휴양지이자 조선 산업 집결지인 나짱과 부산 간 직항편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오는 9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응우옌 티 김 응원 국회의장은 부산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방문 시 가장 먼저 부산을 찾아 부산시 및 지역 기업인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미 많은 부산지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을 복돋우고 부산 기업의 신규 진출을 활발히 이끌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문

부산시청 취업연수 대학생 방문



지난 8월 17일, 부산시청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주관하는 여름방학 근로장학생의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체험을 위해 취업연수 대학생 44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근로장학생 사업'은 대학의 심사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시청 등에서 근무하며 행정 체험을 쌓게 하고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제도이다. 근로장학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서부산 산업단지 내 기업 방문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 향상을 계기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에서는 "학생들의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방문은 대학생들에게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부산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취업 준비생들의 산업현장 체험 및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이번 방문 행사에 우리 회사에서는 경영지원 서재욱 상무와 김청옥 상무가 참석하였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본사에 도착한 학생들은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하였다. 식사 후 1시부터 본격적인 회사 탐방이 시작되었으며, 최지영 사원의 회사소개에 이어 임원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재욱 상무는 기업에서는 높은 학벌보다 개인의 역량을 중요시 한다며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이어 "개인의 역량을 회사가 빨리 알아봐준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장점"이라며 적극 홍보하였다. 김청옥 상무는 30년 전 50개의 대기업 중 살아남은 기업은 고작 12개뿐이라며 실제적인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강점을 어필하였다. 덧붙여 "선보는 현재 32년의 연혁을 가지고 있다. 작지만 강한 회사를 찾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 내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지 말고 아이디어를 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임원과의 대화를 마친 학생들은 본사 3층의 관리직 사무실과 설계사무실을 둘러본 데 이어 구평공장, 구평 1공장 등 공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우리 회사는 이처럼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하여 민관 등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안전

안전지원제 개최 및 안전 관리자 교육



안전한 사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17일 사내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이 본사 4층 교육장에서 한국안전기술 지원단 안전지원부 김남용 부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김남용 부장은 법에서 지정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자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던 중대 재해 사례 및 중요하나 쉽게 지나치는 안전 관리 소홀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이처럼 현장의 관리 감독자로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의무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관리법이 지정한 안전 관리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자들은 매년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선 교육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던 참가자들은 의무교육을 통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한편, 8월 18일에는 구평공장을 시작으로 다대 1, 2, 3공장, 구평1공장, 영암공장에서 각각 안전지원제가 실시되었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하여 각 공장의 공장장, 생산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HSE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술과 과일 등으로 정성스레 상이 차려졌고, 직원들은 무사사고를 기원하는 진심을 담아 천지신명에게 제를 올렸다. 안전지원제는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 매번 마련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특히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전사가 한마음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계기로 관리자와 작업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납품

H2945호선 FSRU



지난 8월 31일, 우리 회사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의 REGAS UNIT를 납품하였다. FSRU는 LNG 터미널 건설 없이도 해상에서 LNG를 기화시켜 수요처로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해양플랜트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이른바 '조선 빅3'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자재의 입고부터 설치까지의 과정 모두가 처음 작업해보는 UNIT로서,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극저온 밸브의 입고 지연으로 인해 작업은 더욱 힘들어졌다. 담당자들은 미입고된 밸브는 더미(임시설치용 자재)를 이용하여 우선 작업 한 후, 밸브 입고 후에 더미를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 회사가 납품에 성공한 REGAS UNIT는 FSRU에 설치되는 것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납품하는 UNIT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REGAS UNIT에 관련한 우리 선보가 독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조선시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FSRU REGAS UNIT에 대한 추가 수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 회사는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한 H2993호선의 FSRU REGAS UNIT 구조 및 의장작업을 원활히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말 납품 예정이다. 담당자들은 성공적인 H2945호선의 납품을 거울삼아 좀 더 나은 품질과 납기 준수를 통해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납품

MR/C3 Package



다대2공장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MR/C3 Package(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 process)를 9월 17일 납품 완료하였다. 해당 제품은 프로판을 혼합냉매로 이용하여 BOG(Boil Off Gas)를 액화시킬 수 있는 설비이다. BOG는 LNG 운반 시 자연적으로 증발 및 기화하는 천연가스로, -162도 가량의 초저온으로 운반해야 하는 LNG의 특성상 탱크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발생한다. BOG가 발생하면 상업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폭발 위험까지 있어 재액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7년 우리 회사가 다수의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한 신규 제품이다. 전체 구조에 관련해서는 구형 1공장에서, 조립 등에 대한 사항은 다대 2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규 제품을 다루다 보니 납품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설계 콘셉트가 유럽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 강재나 소재는 유럽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했는데, 이 때문에 해외의 Stockiest를 통해 자재를 수급해야 하는 등 자재 수급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고객사에 선보임으로써 신규로 3호선 분량의 추가 수주까지 진행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번의 성공적인 납품으로 우리 회사는 MR/C3 System이라는 프로판 혼합냉매 액화장치의 일부 패키지 납품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추후 관련 분야의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활발한 신규 제품 수주와 성공적인 납품으로 쌓은 이 같은 실적들이 향후 우리 회사가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데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사회 공헌

2018년 하반기 헌혈행사 실시



뜨거운 여름의 막바지에 이른 8월 29일, 2018년 하반기 헌혈행사가 진행되었다. 여름이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혈액 수급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었다. 선보가족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평소 바쁜 회사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뿌듯한 경험을 나누었다. 이번에 모아진 혈액

은 고액의 수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담당자는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선보가족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받으실 것 같아 뿌듯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헌혈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헌혈행사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특히 이를 기념할 만한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지난 6월 14일 세계 헌혈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적십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것이다. 혈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1년 내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회사의 행보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전

추석 전 벌초 안전사고 예방법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시기를 맞이한 이맘때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이 벌초 안전사고 소식이다.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 및 뱀이나 진드기 등에 물리는 사고와 같이 사례도 다양하다. 벌초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여 사고 없는 추석을 맞이하자.

☑ 벌초 전 준비

- 벌초 시 진드기나 벌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
- 작은 돌이나 풀이 될 수 있으니 보호안경을 쓴다.
- 예초기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 칼날에 균열이 있는지, 볼트와 너트는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 벌초지 주위에 돌이나 빈 병 등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고 벌집이나 뱀 등이 있는지도 살핀다.

☑ 응급상황 발생 시

- 상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는다.
-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 벌에 쏘였을 때는 1분 이내에 카드 등의 모서리로 벌침을 제거한다.
- 상처 부위를 씻고 연고를 바른 후 얼음찜질을 한다.
- 뱀독은 움직일수록 빨리 퍼지므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 뱀에 물린 데서 심장 쪽으로 5~10cm 부근을 묶어 압박한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 벌초 중 & 후

- 작은 돌, 칼날 등이 될 수 있으니 칼날 부분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벌초 중 풀숲에 앉거나 옷을 풀밭 위에 벗어두지 않는다.
- 앉아야 할 때에는 돛자리를 사용한다.
- 진드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소매와 바짓단을 단단히 여민다.
- 사용한 예초기는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 진드기에 물렸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샤워한다.
- 입었던 옷은 세탁한다.
- 사용한 돛자리도 깨끗이 씻어 말린다.



나누는 글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 담긴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어느 산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듭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이 화려해지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습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 '감사!', '부정' 대신 '긍정!', '절망' 대신 '희망!' 나의 마음도 매사 긍정적으로, 오늘도 맑게 웃고 마음껏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 본사	이정수(9.02) 윤준호(9.14) 강순호(9.29) 김희태(음9.27)	유병창(9.04) 성연우(9.22) 이종필(음9.16) 문해기(음9.27)
☑ 1공장	김종국(9.05) 레이마크(9.07) 이은식(9.08) 이창재(9.21)	장필성(9.06) 진수민(9.07) 바나산(9.15) 박경재(9.24)
☑ 2공장	정혜성(9.19)	
☑ 구평공장	허준형(9.11)	김도영(9.24)
☑ 구평1공장	최 준(9.01) 김경태(9.03) 박영수(9.06) 김재상(9.10) 김창영(9.13) 최근석(9.17) 후쑤지예(9.21) 전철민(9.29) 장세렬(9.30)	양군자(9.02) 김용호(9.03) 강경훈(9.08) 최기웅(9.11) 김범석(9.14) 최남일(9.20) 루이스(9.24) 김성용(9.30)
☑ 영암공장	권상웅(9.13) 서인권(9.27)	최경식(9.20) 하르사(9.28)

임사 기념일

☑ 본사	예연희(9.01) 신유철(9.07)	장태린(9.03) 고중현(9.27)
☑ 1공장	진수민(9.01) 허현(9.07) 김수환(9.13)	이철현(9.07) 명철환(9.09)
☑ 2공장	성기갑(9.01) 김성호(9.02) 김승우(9.24)	조영록(9.01) 김윤덕(9.05)
☑ 구평공장	류시현(9.01) 반 폭(9.03) 이동준(9.25)	송기열(9.01) 정용수(9.14)
☑ 구평1공장	고병일(9.01) 김대오(9.01) 김승표(9.01) 김신(9.01) 김진대(9.01) 문승석(9.01) 박상언(9.01) 박종국(9.01) 방재호(9.01) 석태민(9.01) 신용재(9.01) 아크람(9.01) 안병래(9.01) 유재기(9.01) 윤상동(9.01) 이상인(9.01) 이수진(9.01) 이창환(9.01) 정경근(9.01) 정상범(9.01) 조현규(9.01) 진종관(9.01) 임병준(9.03) 김광호(9.07) 김재상(9.10) 김미화(9.11) 손현숙(9.11) 이고미(9.11) 최성호(9.12) 박영수(9.21) 조현상(9.23)	고영팔(9.01) 김수영(9.01) 김시원(9.01) 김원용(9.01) 도밍고(9.01) 박길섭(9.01) 박일수(9.01) 박종운(9.01) 서우영(9.01) 송상익(9.01) 심백수(9.01) 아꼬말(9.01) 오민석(9.01) 윤대삼(9.01) 윤정아(9.01) 이상훈(9.01) 이용주(9.01) 이충환(9.01) 정득춘(9.01) 정윤환(9.01) 존 (9.01) 허성희(9.01) 공민식(9.06) 차성덕(9.07) 김대성(9.11) 배정현(9.11) 양현미(9.11) 조원우(9.11) 강래운(9.21) 김상진(9.20) 전민재(9.26)
☑ 영암공장	최석균(9.01)	최경식(9.04)